

<명령 불복종과 청렴>

‘군대에서 부하장교가 직속상관에게 충격을 드리다.’ 라는 글을 읽으면서 내 얼굴이 벌겍게 달아올랐다. 이는 아마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저질렀던 잘못과 비슷했고 깨닫는 과정도 같았기에 그랬을 것이다. 내가 교장으로 정년퇴직을 하기 전 근무했던 학교의 영양교사와 다툼 일은 글 속의 대대장과 중위가 다툼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평생 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교장과 영양교사의 직위를 비교하자면 아마 글속의 대대장과 대위쯤 될 듯하다.

“영양사 선생님, 오늘 직원들끼리 교내배구대회를 한 후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식당 예약이 여의치 않아 학교 조리실에서 음식을 좀 차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음식을 만드는 재료비로 돈 30만원을 내밀었는데, 영양교사가 받지 않고 하는 말이 있었다.

“교장선생님, 학교를 관리하는 일은 교장선생님 몫이지만 조리실과 식당의 관리는 제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음식의 조리를 거절하는 것이었다. 이유인즉 급식실의 조리종사원들에게 학생들을 위한 급식 외에 다른 일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엄연히 그들의 임무가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킬 수 없으니 재고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학교의 운영과 관리는 물론 학교 식당도 학교장인 내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자 영양교사는 한 가지를 덧붙이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직원들 회식을 위해 조리실에서 조리종사원이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직원들이 먹었을 때, 식중독이나 기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다면 일은 건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도, 교장선생님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교장선생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항명이었지만 결코 틀린 주장은 아니었다. 영양교사나 조리종사원의 업무가 아닌 사적인 일에 조리실을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학교장은 영양교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규

정에 어긋난다고, 불법적이라며, 명령은 받을 수 없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날 회식은 불발되었고 나는 직원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는 이후 나는 영양교사를 사사건건 닦달했으니 밴댕이 소갈딱지만도 못한 좁은 속을 가지고 있었다.

부식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목격한 대위가 부식 불법반출을 제재했으니, 우리 학교의 영양교사처럼 어찌면 상관에 대한 항명으로 비취질 수 있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남자들이 군에 입대해 복무했으니 군대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모두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대위가 감히 대대장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걸 수 있었겠는가? 아무리 청렴이라는 거대한 무기로 완전무장을 하고서 대대장에 달려들었다 하더라도 승부는 뻔했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 본다면 군대문화에서의 계급은 그 어느 것으로도 맞설 수 없는 것이니 말이다. 그런 충돌을 원인으로 부대를 떠나라는 대대장의 말에 대위가 또 한 번 덤벼들었으니 내가 경험한 군대생활과 견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대대장님. 왜 제가 이 부대를 떠나야 합니까? 대대장님이 먼저 떠나셔야죠? 잘못된 사람은 대대장님이시니까요.”

정말 글쓴이는 간이 부었는지 이젠 막가자고 덤벼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청렴이라는 무기는 별 4개라도 당할 수 없는 최신 무기이기에 대대장은 바로 ‘나가’라는 말로 꼬리를 내렸다. 우리가 나보다 높은 상사의 잘잘못을 논하려면 진출이라는 모가지를 걸어야 한다. 그런데도 대위는 감히 그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 글을 쓴 대위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다. 바로 일을 열심히 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성실’이라는 무기 말이다. 우리 주변에는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걸핏하면 잔소리를 늘어놓고 후배를 닦달하는 선배가 있다. 이런 사람은 상관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동료나 후배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글을 쓴 대위는 부대에서 발생한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데 빈틈이 없었다. 그런 성실이라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기에 감히 상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상관들은 관행으로 부대 부식을 불법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부터 빈틈이 없고 청렴했던 대위는 그러한 적폐를 과감히 뿌리 뽑기 위해

대대장의 행위를 지적했던 것이다. 주어진 일에도 빈틈이 없고 청렴으로 무장한 그런 대위를 바라본 대대장도 결국은 깊이 느끼고 반성을 함으로써 청렴사회로의 전진에 일조를 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료 반출이라는 뿌리 깊은 관행과 싸워 이기려면 다부진 마음으로 그동안 가지 않던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 더구나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청렴을 위해 가야할 험준한 길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감히 관행으로 굳어진 적폐를 일소하고자 상관에 덤벼들었으니 글쓴이의 대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글쓴이에게도 믿을 수 있는 청렴과 성실이라는 최신투기가 들려져 있었으니 두려움이 덜했을 것이다.

요즘 4성 장군이 공관 병사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노예부리 듯 했다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다. 심지어는 팔목에 호출기까지 차고 부름에 응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뿐이 아니다. 그 공관에는 냉장고가 무려 9대였다 하니 벌려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 냉장고는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산 공관의 비품이다. 그런 비품을 전출할 때마다 가져갔다 하면 후임자는 또 국민의 세금으로 냉장고를 다시 구입했을 것이다. 더구나 냉장고 9대를 가동하려면 전기를 사용해야 했을 것이다. 그 전기세는 누구 돈으로 냈을까? 이처럼 별을 4개나 단 장군도 부조리와 부정으로 평생을 살았는가 하면 대위처럼 청렴과 결백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하찮은 것이라 해서, 예전부터 관행으로 해오던 것이라 해서, 별을 4개나 단 장군이라 해서, 법과 도덕위에 균립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병사들을 자기 하인 다루듯 하던 장군도 우리학교 영양교사처럼 아랫사람을 내 식구처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면 별을 4개나 달고 제대 말년에 구설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학교장의 명령을 거역한 영양교사를 미워하고 서먹하게 지내던 나도 그녀가 일하는 것을 보니 대위처럼 성실하고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다. 몇 달 후 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녀에 사과를 했다.

“김 선생, 김 선생 말이 맞았어. 돈도 얼마 받지 못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어렵게 일하는 조리종사원에 가외의 일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구나 학교의 조리시설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사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도 깨우칠 수 있었어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어디든 부정과 부패가 존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나 하나만이라도 깨끗하게 생활한다는 의지만 가지면 부정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나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 저지르는 부정이라 해서 못 본 척 넘긴다면 이는 불의와 타협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물론 청렴이란 쉽고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다 같이 주위를 돌아보며 법과 규칙 그리고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다.